

自主國防에 있어서의 海軍의 位置

金 點 坤*

1. 國際情勢의 變遷

國家의 安全이라는 것은 軍에 依하여 이루어있는 것 만은 아니다. 現在國際情勢를 把握하고 情勢의 變化가 우리에게 어떻게 投影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겠다. 第2次 世界大戰後의 國際政治를 東西體裁 또는 亞타體裁로 이야기 하고 있다. 이 體裁는 相對方의 威脅에 對處하는 方法으로서 集團安全保障의 體裁를 갖춘 것을 말한다. 이러한 體裁下에서 冷戰이 이루어졌으며, 이 冷戰은 1947年 이후 激化되어 第二次 世界大戰中 協力하였던 美蘇間에 冷戰이 벌어지게 되었다. 윈스턴 처칠은 이것을 美國 訪問中 演說에서 iron curtain 이라 칭하였다.

1950年代에 들어 와서는 蘇聯도 核武器를 保有하게 되어 核과 核의 交錯狀態에 이르게 되었다. 이 核의 交錯은 第1次 世界大戰이나 韓國戰爭 또는 越南戰爭에서의 戰線의 交錯과 같은 異質의인 戰力의 交錯이 아닌 同質의인 힘의 平衡狀態下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즉 核武器는 限界容量을 넘을 때 그 質에 있어서 同質의인 效能을 갖게 된다. 다시 말하자면 核武器가 相對方을 破壞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이 힘이 100배 또는 1000배가 되더라도 하나인 것과 量的으로는 1000對1이지만 質에 있어서는 同質이 되고 따라서 交錯狀態에 들어가게 되는 特徵을 갖는다. 이러한 特徵에 依하여 共存體裁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1956年 후르시초프가 第20次 共產黨大會에서 行한 演說에서 더이상 戰爭이 不可能하다는 共產主義 教理上의 修正과 權力構造의 變革이 일어나게 되었다. 우리는 이것을 修正主義 또는 共存體裁 그리고 스탈린格下運動 또는 集團體裁로의 變化로 말하고 있다. 1958年頃부터 雙方의 相應措處에 依하여 共存體裁는 多極化의 體裁로의 變化를 가져 왔다. 이는 威脅에 對處하기 爲한 集團體裁가 威脅이 減하여 짐에 따라 緊張이 緩和되어 유대가 解弛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韓國情勢 判斷에 重要한 點이 된다. 東西激化時代 즉 強大國이 싸우려 할때에는 韓國은 反共戰線으로서 讚揚되었으나 現在의 共存體裁 즉 強大國이 和解段階에 있어서는 싸우려는 것은 罪惡視된다. 이것이 韓國을 困難한 立場에 빠지게 하는 原因이 되고 있다. 또한 共存體裁는 共產圈에 있어서도 中蘇의 對立, 東歐羅巴에 있어서의 瓦르샤와條約에 對한 抵抗, 共產圈 經濟協力體에 對한 民族主義의인 抵抗 또는 共產圈內의 自由化의 旋風等의 變化를 가져왔다. 볼체비키 革命 50周年인 1967年 10월에 들어서는 蘇聯의 世代階層을 革命前 帝政 러시아에 살았던 할아버지 世代와 現代의 젊은 世代와는 대화가 可能하나, 中間階層인 아버지 世代는 革命後 스탈린 體裁下에서 살아 왔음으로 해서 다른 어느 世代와도 對話가 되질 않는다고 評할 만큼 政治的인 權力構造 뿐 아니라 被支配層의 絕對的인 構造의 變革이 이루어졌다. 또한 變革은 西方側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國際情勢의 特徵을 70年代的인 國際狀況으로 볼 수 있다.

2. 國際情勢속에서의 韓國의 位置

韓半島는 이러한 70年代的인 國際狀況에서 상당한 격차를 가지고 遊離된 狀態에 놓여 있다. 첫째로 時差遊

*慶熙大

金點坤教授 安保 및 國際問題 研究所

離를 들 수 있는데 이는 國際的인 情勢는 雙方的 政策의 相應措處에 依하여 核武器 擴散禁止條約 또는 戰略武器 制限에 對한 會談等이 進展을 보이고 있는데 韓國은 和解가 이루어지고 있는 國際情勢와는 달리 1940年代의인 冷戰要素와 1950年代의인 熱戰狀況을 同時에 갖고 있다. 즉 韓國은 國際情勢에 對하여 約 25年의 時差를 갖고 遊離된 狀態에 있다고 보아야 하겠다. 強大國에 勢力均衡上 算出한 38線에 依하여 造成된 狀況이며 強大國들은 自己들이 만든 狀況을 外面에 버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들 強大國을 道德的인 基準으로 批判할 것이 아니라 嚴然한 國際情勢로 받아들이고 適應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둘째로 東西의 空間的인 隔差를 들 수 있겠다. 즉 서쪽에서는 緊張이 緩和되어 和解와 繁榮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對하여, 이러한 緊張의 緩和가 동쪽에 까지 波及되지 못하여 동쪽에서는 緊張이 持續되어 繁榮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共產主義者들은 러시아 아카데미에서 出刊된 現代史에서 이러한 問題를 韓國戰爭의 部分을 通하여 間接的인 說明을 하고 있다. 그들의 唯物史觀 또는 戰爭觀으로 볼 때에 美國과 같은 資本主義體裁下의 國家는 그 生産體裁가 軍需産業體裁로 되어 있어 經濟恐慌等의 破綻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戰爭이 不可避하다. 따라서 韓國과 같이 擴戰의 威脅이 없는 곳에서 戰爭을 遂行하게 된다고 하고 있다. 이들의 말을 믿지 않더라도 強大國이 自身の 利益을 爲하여서는 弱小國에 犧牲을 強要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다. 그래서 西쪽에서는 制限된 共存이나 協力が 이루어지고 東쪽에서는 核戰爭까지는 發展되지 않는다는 上限線을 互敵對行爲가 일어나고 있다.

세째로 國際的 緊張 혹은 國際情勢의 緩和 등이 하나의 軸을 가지고 變化하고 있다. 多極化의 現象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두개의 수퍼 파워워인 美蘇 兩大國을 基點으로한 變化가 된다. 여기에 第三의 수퍼 파워워로 中共이 可勢하게 되면 三角體裁가 될 것이다. 韓國은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하나의 邊境事態에 不過하다. 韓國問題는 이러한 緣由로 해서 國際政治上에서 于先順位가 알아지게 된다. 이러한 세가지의 점이 韓國의 安全保障에 관한 外的要素가 되는 命題들이다.

3. 美國의 對外政策의 變化

國際情勢의 主役인 美國도 상당한 變質을 가져왔다. 특히 越南戰爭을 通하여 戰爭의 特殊性이 西歐의 戰爭觀을 갖는 美國人들에게 좌절감을 갖고 唐慌하고 勝利에 對하여 焦燥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越南戰에서의 美國의 脆弱性이 68年 3月의 존슨의 重大聲明으로 나타나 政治的 協商을 通한 終戰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것이 존슨 行政府를 窮地에 몰아 넣었고 選舉에서 닉슨이 勝利하게 되었다. 물론 닉슨의 勝利에는 越南戰이라는 國際情勢 以外에도 國內情勢로서 그레이트 쏘싸이어티의 建設에 차질, 人種問題, 稅制問題, 貿易逆調 등의 諸 問題가 있었다. 따라서 닉슨이 當選後에 새로히 내걸은 政策이 아시아地域 巡訪中 7月 25日 靑島에서 發表한 닉슨 독트린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들어난 重要한 政策의 윤곽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아시아에 있어서 軍事的 介入 또는 負擔을 줄이겠다. 둘째로 第2의 越南戰爭과 같은 것을 적극 회피한다. 세째로 核軍事力을 가진 強大國이 威脅할 경우에는 介入하여 保護하여 준다. 그러나 非核軍事力의 威脅 또는 國內情勢에 對하여는 당사국이 一次的인 責任을 져야 한다. 네번째로 아시아地域 國家들의 集團安全保障의 勞力을 支持하고 積極 後援한다. 다섯번째로서 既存公約을 履行한다. 여섯번째로서 美國은 아시아에 主要勢力으로 남는다. 여기에 但書를 붙여서 “特殊한 問題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對處한다”라고 하였다. 닉슨은 泰國 訪問演說에서 泰國에 關해서는 內外的 威脅으로부터 美國이 保護하여 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對하여 홀브 라이트와 같은 사람은 “뭐가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한다”고 評하고 있으며 事實上 닉슨 독트린에는 많은 矛盾이 있고 不透明하다. 뿐만 아니라 韓國에 對하여 具體的表現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몇가지 徵候들

로 볼 때 美國은 非美國化 政策을 내걸고 뒤로는 越南에 있어서는 越南化 政策, 아세아라는 空間的 平面에 對하여는 아세아인에 依한 防衛를, 韓國에 對하여서는 레어드 國防長官의 議會發言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은 韓國化 政策을 내 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發言에서 韓國化는 잘 進行되고 있으며 越南化와 같은 뜻이라 하고 있다. 따라서 벤스 特使의 韓國 訪問中 供與키로한 1億弗의 援助도 韓國化를 爲한 하나의 投資라 생각할 수 있으며, 이 韓國化의 進行에 따라 駐韓美軍의 撤收가 問題化될 것이다. 1963年 빅 리후트라는 空輸作戰後 美國軍 1個 師團을 西獨에서 撤收한 바 있다. 韓國에 對하여서는 美軍의 撤收가 다음의 세가지 原因에 依하여 漸定的으로 保留되었다. 첫째는 쿠바 事態以後 東西陣營에 最大의 衝擊을 준 불란서의 NATO 脫退로 NATO의 全構成 國家가 動搖하게 되었다는 것과 中共이 核武器를 保有하게 되어 東北아세아에 共產陣營의 壓力이 加重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톤킹灣에서의 事態가 惡化되어 越南戰이 北爆이 開始되었으며 韓國은 이미 2個 師團에 派越이 決定되어 있었다. 셋째로는 韓國軍 2個 師團의 戰力이 美國軍 1個 師團의 戰力에 對等하며 이것으로 대체되었다는 점이다. 이로 미루어 確實해 진것은 美國은 美國의 利益에 合值되며 그 紛爭乃至는 戰鬪에서 有利한 立場에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介入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의 自動的 介入이라는 公約에 대한 否定이다. 또 美國은 지금까지의 援助政策을 止揚하고 自助國 選別 援助로 바뀌었다. 美國의 對外援助는 繼續縮少되어왔고 71년에는 無償援助가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非美國化政策의 代案으로서 日本의 進出을 促求하고 地域 安保體裁로의 防衛政策의 變化를 보이고 있다.

4. 美國 政策變化의 問題點

1969年 11월 27일 존슨과 사토의 共同聲名에서 사토首相은 “韓國의 安全保障의 日本의 安全保障에 對하여 이센설하다”라고 말하였다. 이 이센설이란 말은 政治的으로 볼 때 韓國의 安全保障에 있어서 美國의 役務를 代行하는 代替 勢力으로서의 日本은 否定的이고 不信任하게 하는 말이다. 오기나와 反還의 豫備接觸이라 할 수 있는 세미나 形式의 교도모 컨퍼런스에서 사이끼라는 日本의 노무라 綜合研究所의 所長이 韓國의 모든 事態는 內戰으로 規定하였다. 이에 對하여 웨링이나 테일리將軍과 같은 사람들도 正面으로 反駁치 못하고 “韓國의 安全保障은 日本과 아주 깊은 關係가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 사이끼라는 사람의 發言이 個人的 意見이 아니라 日本國內의 意見을 代表하고 있다. 이렇게 國內意見이 否定的인데 이센설이라고 한 理由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 본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오기나와 反還問題이고 둘째는 綿織物 輸入制限 措施의 緩化로서 이 政治的 흥정에 있어서 美國이 取한 것은 7:1의 貿易逆調에 對한 協力이나 美國資本의 日本進出 등이 아니고 이센설이라는 發言 뿐이었다. 日本의 憲法構造, 國民感情, 政治權力的 多樣性으로 보아 이런 多分의 政治的인 表現으로 韓國의 安全保障과 直結되는 오기나와 問題等이 韓國을 除外한 美日間에 雙務的으로 解決되었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할 점이다. 個人的인 接觸에서 日本大使는 이센설이라는 말의 具體性을 한마디도 表現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美國의 越南의 100萬 武裝化를 越南化라 한다면 韓國化에는 日本을 美國의 役務代行勢力으로 남기려 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美國과 日本이 否定的임으로 韓國은 外國의 支援으로부터 空白 狀態에 놓일 可能性이 있다. 또한 美國이 主唱하는 地域集團 安全保障制度에 있어서는 다음의 問題가 있다. 즉 軍事同盟의 前提條件들이 滿足되어야 하겠다. 첫째로 共通된 威脅이 있어야 하겠다. 둘째로 共通된 威脅에 對하여 같이 막는다는 決意가 되어야 한다. 셋째로는 決意로 묶어진 勢力이 威脅勢力에 相應할만한 力量을 가져야 한다. 즉 具體的으로는 中共에 對抗할 만한 크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美國의 非美國化政策에 對한 아세아 諸國의 反應은 매우 錯雜하다. 필리핀의 로무로外相은 左傾의 可能性을, 말레이시아는 緩衝地帶의 中立을 캄보디아의 시아누크公은 美國勢力의 東南亞地域에 殘留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形便에서 同質的으

로 묶는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하다. 非政治的인 面에서 보더라도 아세아는 구라파와 같은 宗教的, 文化的, 地域的 또는 經濟的인 同質性이나 政治體裁上的 自由主義的인 同質性조차 찾아 볼 수 없다. 韓國 日本 越南 臺灣 等에는 政治的인 點과 佛敎의 文化를 배경으로 한다는 同質性이 있으나 經濟的인 面에서 競爭狀態에 있어 異質性이 더욱 強하다. 이제 남은 方法은 同質的인 國家부터 軍事的 乃至는 經濟的으로 묶고 2 次的으로 全體를 묶는 길이 있을 것이다. 즉 美國의 代贊勢力으로서의 日本이나, 集團安全保障制度가 모두 否定的인 바 있다.

5. 自主國防의 態勢

自主國防의 當爲性을 集約하면 다음 세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는 自主的인 힘을 길러야 한다. 둘째로는 敵의 挑發의 性質이 變質되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즉 過去의 敵의 挑發의 性格은 完全히 暴力的이었으며 다음의 3가지 要因을 내포하고 있었다. 첫째는 小數 權力層의 의사인 統一의 野望, 둘째는 蘇聯의 物質的인 支援, 셋째로 中共의 人力支援이었다. 이 3大要因이 무너지면서 敵은 脆弱性을 보인바 있다. 그러나 1970 年代의 敵은 金新朝의 攻擊에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共產圈內에서도 가장 極左이며 閉鎖的이고 獨裁的인 體裁內에서 가장 戰鬥的으로 成長된 世代인 30代 以下의 世代로 構成되어 있다. 여기에 對處하는 韓國의 30代 以下의 世代는 對共 脆弱世代로 표시될 수 있다. 셋째로는 國際情勢의 變化에 對處해야한다. 이러한 세가지 當爲性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을 길러야만 한다. 自主國防은 모든 補給을 自給自足할 때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現在 韓國軍은 物質的인 依存에서 비롯한 意識構造上의 外部에 對한 依存度가 매우 높다. 이러한 意識構造의 改編을 이룬다면 우리의 自體의 힘에 의한 集團安全保障能力에 큰 보탬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美國의 自助國 選別援助 政策에도 合致되는 援助받는 態勢가 될 것이다. 다음은 우리의 戰力を 土着化 해야 하겠다. 國民教育憲章에서와 같은 意識構造의 向上이 이루어진다면 全體 人口構造가 戰力構造라고 할 수 있는 튼튼한 構造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自主國防의 基本態勢는 戰力上의 戰鬥力量을 向上시키고 그 底邊을 擴大함에 있다고 볼 수 있다. 軍의 戰鬥力量을 갖이고 볼 때에는 獨者的인 方法으로 그 質을 向上시켜야 하겠다. 物質的인 量에 앞선 質의 向上이 必要하다는 것이다. 韓國에 있어서는 비록 物質的인 面에서는 美國의 것을 억지로 우리에게 맞추어 쓰고 있으나 우리의 敵이 러시아가 아니고 北韓의 土着化된 戰力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以北의 土着化된 戰力에 比하여 優越한 韓國的인 戰力の 土着化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斷言할 수 있다. 이러한 點들로 볼 때에 戰力の 開發에는 우리의 意識構造 및 戰力を 向上시키려는 勞力에 上限이 없드시 無限한 限界를 갖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서는 經濟的인 限界 즉 量的인 限界가 있었고 技術的인 質的인 限界가 있다. 經濟 發展을 위한 勞力과 安全保障을 爲한 勞力은 相互 矛盾되고 相值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이 두가지를 合한 것을 外部로 向한 하나의 힘으로 볼 때에는 그 어느 것이 先行되더라도 同一한 效果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外部의 威脅에 對處함에 있어서 經濟發展을 이룩하고 이를 保護하여 줄 힘을 並進시키고저 할 때에 多少 相衡되는 點이 있으나 이러한 異質的인 要素를 調和하는 것은 政治的인 作業이라 할 수 있다. 技術的인 面에서의 制限은 排他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外部의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으로 消化시켜야 하겠다.

世界列強으로 急速히 發展한 日本의 경우는 우리에게 웃어넘길 수 없는 教訓이 되고 있다 하겠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主體的인 力量에 外部의 지원을 플러스시킴으로 自主國防의 態勢를 갖추 수 있을 것이다. 또한 外交政策面에서도 外部의 지원을 받아들이는 態勢로의 轉換이 必要하다. 지금까지의 우리 外交政策의 골자는 北韓의 侵略狀과 그에 對應하는 우리의 態勢를 자랑으로 삼는데 있었다.

이는 앞에서 이미 말한 바 있는 國際情勢의 變化에 따라 마땅히 變換되어야 한다. 美國의 外交政策을 볼 때에도 美國은 1940年代로 부터 1960年代까지는 東西對立이라는 同質性으로 韓國과 直線의으로 유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1970年代에 있어서 美國은 變質되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外交政策도 이에 맞추어 變化되어 새로라 對美 關係를 成立시켜야 한다.

6. 國軍의 位置

軍隊라는 것은 그 위에 上位次元으로서 政治라는 것이 存在하여야 하며 이것이 없을 때에는 한개의 暴力集團으로서의 特徵만을 갖게 된다. 그런데 韓國의 軍事力의 上位次元에는 技術의으로는 政治가 存在하지 않고 있다. 憲法 第22條에 大統領의 國軍統帥權으로서 규제하고 있으나 現實的으로는 컨맨딩 채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指揮 命令權을 發動코져 할 때에는 命令系統에는 斷切이 생기게 된다. 유엔軍 산하에 韓國軍이 있음으로 國軍의 上位에는 유엔軍司令부가 있게 된다. 유엔軍은 名目上으로는 유엔에 속하여 있으나 유엔에 決意事項으로서 美國政府에 完全히 讓渡되어 있어. 司令官의 任命에 이르기까지 美國政府에서 全擔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의 軍事力의 上位에는 서울이 아닌 워싱턴이 存在하게 된다. 따라서 政治的인 의사로서의 軍의 指揮에는 심각한 問題點이 있게 된다. 이것이 평소에는 나타나지 않으나 사이가 벌어졌을 때 즉 구테다가 發生하였다던가 하는 경우에 유엔軍이 原隊復歸를 命命하는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의 根據는 유엔軍司令부의 指揮밖에 있는 軍部隊라는 것은 首都警察司令部 以外에는 거의 없다는 事實에 돌 수 있다. 앞으로 韓美關係에 있어서는 韓美協義體 등을 두어 그 위에 워싱턴과 서울이 並存하는 體制가 必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軍事上位에 政治가 있고 政治的 政策이 軍事面에도 反映될 수 있고 現在와 같은 美國參謀의 指揮監督이 아닌 韓國參謀團의 쥘인트 스태프로서의 存在가 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韓國軍을 合理化하는 길이 될 것이다. 現在 北韓의 金日成은 다음의 두가지 問題를 제기하고 있다. 즉 하나는 全 北韓을 革命을 위한 民主基地化한다. 그리고 이 革命勢力을 南韓에 移動시키고 國際情勢를 그들에 有利하도록 誘導해야겠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以北의 革命 民主勢力은 벌써 구축되었고 國際情勢도 5部5部의 程度로 그나마 弱화된 형편이다. 단지 南韓에 金日成이 이야기하는 革命勢力이 養成되지 않았다는 點이다. 만일 이런 勢力이 養成된다면 內戰으로서 規定지어 질 수 있는 國際陰謀로서, 이점을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의 問題點은 金日成은 革命과 統一은 별개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이것도 하나의 國際陰謀로서 革命은 南韓內의 內戰으로 規定되게 하고 統一은 革命後 그들 間에 成立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當面한 情勢는 轉換期에 부딪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의 戰力을 平面的으로만 擴張시킬 것이 아니라 空間的인 對備策까지 넓혀야 하겠다. 가령 平面的으로 戰線에만 對備하였는데 金新朝部隊가 攻擊하였을 때와 같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데 對한 對備策이 없는데 어찌서 그런 길로 오느냐 하는식의 말은 成立이 되질 않는다.

우리는 軍隊를 두엇하리 두는 것입니까? 敵 31名 出現에 3~4個部師團이 움직였으며 이들을 잡는데 있어서도 零下 18° 以下라는 氣候에 힘을 입었고 戰死者도 그들에 比하여 3倍以上 이었다. 또 死亡한 敵을 보면 벌집 같고 우리의 犧牲者는 要所에 致命傷을 입고 있습니다. 즉 敵의 射擊術이 我軍보다 優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新聞에 報導된 誤發事故가 許多합니다. 이로보아 戰鬪態勢가 엉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싸움에 이길 수 없는 軍隊는 存在의 價値가 없습니다. 지금 軍隊로서 自國內에서는 最大의 힘이고 外部에 對하여서는 굉장히 弱한 軍隊를 볼 수 있습니다. 南美의 여러나라 軍隊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테다 뿐입니다. 眞實한 軍隊는 항상 敵에 對하여 強하여 이길 수 있고 戰爭을 抑制할 수 있는 軍隊입니다.

7. 韓國軍의 特徵

韓國 軍事力에는 다음의 세가지 特徵을 이야기할 수 있다. 첫째로 韓國軍은 武力의 原泉인 戰力原이 多元性을 갖는다. 즉 外國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는 戰力原의 供給이 多元化되어 있다. 둘째로는 戰力構造가 복합성을 갖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軍需品 뿐이 아니고 作戰面에서까지 복합성을 갖고 있다. 심한 예로서 韓國戰爭이 끝난지 오랜 1955년까지도 陸軍步兵學校에서 美國地圖에 依한 美國作戰을 講義한 例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點은 外交政策 面에서도 美國의 政策이 變化되었는데도 安心하고 依存하고 있는 것과 相通한다고 볼 수 있겠다. 이런 것은 물론 精身의인 慰安은 얻을 수 있을런지 모르나 우리의 敵인 共產主義는 대단히 냉철하기 때문에 우리가 依存하고 있는 것이 不實하게 變質되었을 때 攻擊해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實質的인 對備策이 있어야 한다. 또다른 하나의 複合性은 戰力構造 自體에 있어서도 巨大한 地上軍과 작은 空軍과 海軍으로 構成되어 있어 均衡을 爲하여는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들 수 있다. 다음 세번째의 特質은 軍의 임무가 二元的인 데 있다. 軍은 應當 排他的이고 自國에만 忠誠을 해야 한다. 그런데 韓國軍은 國家意思에 反하여 泰國의 意思에 따른다면 反逆이 되겠으나 美國의 意思에 따라도 勳章을 주고 昇進될 수 있는 點에서 二元的인 特徵을 갖는 現實이다. 이러한 세가지의 特徵을 말할 수 있다. 또 지금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問題로서 南北韓의 대치상의 성질을 알 필요가 있다. 戰爭 中에 쉬는 대치 상태와 戰爭 前의 대치 상태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韓國의 現在의 狀況은 戰爭前의 대치 狀態라 할 수 있다. 그런데 敵은 豫告없이 우리가 汗눈을 팔고 있을 때 뒤에서 기습해 온다. 따라서 現在의 狀況을 敵의 挑發을 받고 있는 狀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挑發의 樣狀의 變化에 따라 戰爭의 樣狀도 달라질 것이다.

8. 韓國軍의 戰力構造와 海軍

韓國軍의 戰力構造를 形成함에 있어서는 于先 大前提로서 敵의 挑發의 性格을 把握하고 앞으로의 變質을 가정해야 한다. 이러한 假定은 항상 正確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智慧를 總動員하여 假定을 設定하고 다음에 이에 對應하는 우리의 所有를 算定해야 한다. 이렇게 算定된 우리의 必要한 所有는 現實的인 우리의 資源 財政, 人口의 質, 國際情勢, 外交等에 依하여 다듬어 지어 決定될 것이다. 다음에 軍事目標에 따라 任務를 遂行하기 위한 技能 中心으로 決成을 할때 軍服은 同一하나 作戰任務가 다른 戰力 構造를 만들 수 있다. 現在의 韓國軍은 空間的 技能에 依하여 陸海空軍으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空中活動을 하되 陸軍에 砲兵觀測을 爲한 地上活動의 延長으로서 航空隊를 두고 있다. 마찬가지로 海軍에도 獨特한 훈련을 받아 바다를 아는 操縱士가 操縱하는 適當한 크기의 航空隊가 있어야 하겠다. 海軍의 基本的인 業務는 海上作戰, 上陸作戰의 지원, 海岸 警備, 海上封鎖, 海上輸送等的 廣範圍한 바 있으나, 우리가 처해 있는 南北狀況下에서 가장 支配的이고 決定的인 것을 찾아야 하겠다. 여기에는 敵海軍의 挑發 및 力量에 對한 假定이 있어야 하고, 이에 依하여 海軍은 攻擊의이든가 防禦의이든 또는 定規戰이든 非定規戰이든 모든 事態에 對應할 수 있는 多角的인 體裁를 갖추어 選擇의으로 對應할 수 있어야 하겠다. 現在 海軍의 形態는 100年前의 海岸警備를 위주로한 形態라 할 수 있다. 지금 海軍에서 구상하고 있는 小型快速艇 問題도 過去에 廣範圍한 調査끝에 必要性이 主張되나 있었으나 當時 海軍의 反對를 받았었다.

節對的인 힘으로서 美英 海軍이나 蘇聯의 海軍에 對等한 海軍이 아니고 敵의 海軍力量에 對하여 優越한 힘을 갖는 海軍이라는 目標을 세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小型이면서도 快速이고 크기는 적지만 260척 程度

의多數의 船舶을 갖고 있고, 小型이면서 攻擊의인 以北의 海軍을 생각하여야 하겠다. 우리의 海軍은 噸수는 많으나 數는 적고 速度는 느리고 火力는 強하지만 機動性은 緩慢하다는 點에서 大端히 對照的이고 따라서 防衛의인 海軍이라 할수 있다. 이렇게 볼 때에 우리 海軍의 앞으로 할 바가 決定되어야 하겠다. 또 軍全體를 볼 때에 지금까지와 같은 유니폼 칼라에 依하여 閉鎖的 態度를 지양하고 開方的인 方法으로 豫算 鬭爭이 아닌 豫算協助를 通하여 基本的인 戰力構造를 만들고 이에 다른 計劃的인 豫算 配定이 必要하다. 過去 韓國軍은 戰力增強費에는 關心이 없고 機密費給料 食費等에 對한 各軍別 豫算鬭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지양하고 海軍의 力量強化를 하여야겠다.

9. 海軍의 位置

海軍의 軍事力으로서의 特徵은 大端히 政治性을 띄고 있는데 있다. 물론 이 말은 變動하는 國內 政治에 關係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國際性을 가진다는 점이다. 또 地上軍이 國內性을 갖는데 比하여 海軍은 外向性을 갖는다는 뜻이다. 또한 海軍은 國際協助性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地上軍 또는 海軍이나 空軍이 介入하였을 때 그 介入의 特徵은 각기 다르며 特히 陸軍과 海軍의 介入의 特徵을 比較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陸軍의 介入에 있어서는 몇가지의 問題點이 發生한다. 첫째로 地上軍의 介入은 被援助 國家의 主權을 제약하게 된다. 韓美間의 防衛 協定에 依하여 美國은 陸海空軍을 韓國領土內나 그 周邊에 駐屯시킬 수 있으며 이것을 外國軍隊의 國內 進駐로 본다면 主權의 制約을 가져오게 됨으로 主權國家로서는 妥當하고 健全한 方法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둘째로 戰場의 性格을 에스컬레이션 시킨다. 어느 한 國家가 어느 國家에 地上軍을 投入하였을 때 相對方 역시 地上軍을 投入하게 된다. 越南戰에 있어서는 越盟의 民族主義的 性格이 中共의 地上軍 投入를 牽制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지 않으면 戰爭을 더욱 에스컬레이션 시키게 될 것이다. 셋째로는 交戰 相對方과 直接的인 戰爭狀態에 들어갈 可能性이 있다. 네번째로서는 國際政治面에 복잡한 政治問題를 일으키게 된다. 다섯번째로는 戰爭이 長期化하고 교착될 可能性이 있게 된다. 地上軍은 신속히 戰場에서 뺄 수 없기 때문에 伸縮性이나 融通性이 없고 撤收가 自由롭지 못하게 된다. 일곱번째는 戰爭의 終結은 勝利 또는 敗北없이 일어나기 어렵다.

여기에 對하여 海軍이 介入하였을 때에는 다음의 特徵이 있다. 첫째로 機動性이 풍부하다. 둘째로 公海上에서도 作戰이 可能하다. 셋째로는 軍事活動의 空間이 領土 밖임으로 戰爭 介入으로 因한 부담 및 政治的 달성이 적다. 네번째로서는 伸縮性 및 融通性이 있다. 다섯번째는 따라서 作戰活動에 政治的 要求 또는 自主性을 發揮할 수 있다. 여섯번째로는 戰場에서의 離脫이 自由롭다. 이점이 陸軍과 크게 다른 점이다. 일곱번째는 戰爭의 終結에 關係없이도 戰場 離脫이 可能하다. 이러한 海軍의 特徵으로써 海洋國家가 대체로 開放的이고 政治的 影響圈이 相當히 넓다. 美國의 例를 보면 地上軍 中心國이 內向的이고 軍事力이 固定이고 典型的인 힘으로 밖에 發揮할 수 없음으로 太平洋과 大西洋을 海軍勢力下에 둠으로 政治的 勢力圈에 넣고 있다. 이것이 美國을 平化維持와 繁榮을 누리게 하고 있으며 蘇聯 역시 海洋的 勢力을 갖는 國家로 전환하려 勞力하고 있다. 中共도 韓國戰爭 後에 海上勢力이 없음으로 해서 人海戰術을 使用하였다고 말하고 있으며 日本 역시 海上自衛隊를 強化함으로 美國과 유대를 強化하려하고 있다. 最近 東南亞의 말라카 海峽이 日本의 生命線이라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日本 海上勢力의 進出 方向을 뜻하기도 한다.

韓國 海軍역시 對共戰에서의 直接的인 투쟁 외에도 非對決的인 狀況下에서도 無邊의 圈大한 貢獻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韓國半島를 밖에서 지켜 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國內에 政治的 不安과 社會的 不安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海軍은 直接的인 戰力으로서 뿐 아니라 間接的인 主權의 外向的表示와 主權의 保護 역할을 하는 의미에서 크게 평가해야 된다. 뿐만아니라 海軍은 國際協力性이 強하여 海上을 통한 國際協力을 이룰 수 있으며 海上勢力을 가지고 國家의 富強을 나타내기도 한다. 海軍은 그 나라의 工業力, 經濟力 및 技術을 總動員 하여서 얻어 짐으로 國力을 象徵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國力을 外向的으로 과시하려면 地上軍보다 海上力量을 強化시키는 것이 빠르다.

海上 勢力을 強化함에 있어서는 經濟的인 面이나 技術的인 面만을 고려하여 美國 또는 日本에서 사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자기의 돈을 주고 사오더라도 問題點이 생기게 된다. 즉 外部에 依存하는 만큼 그 나라의 政治的 影響을 받게 되며 잘못하면 종속적인 關係에 빠지기 쉽다. 뿐만아니라 우리가 必要한 時期에 사올 수 없는 狀態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實例를 自由中國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力量을 길러 海軍의 力量을 스스로 強化시켜야 하겠다.